

음운규칙 간의 위계 검토

임 석 규*

I. 서론

공시적인 음운과정의 기술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짐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규칙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Chomsky & Halle (1968:20)에서는 규칙들은 선형적인 순서를 가져야(linearly ordered) 한다고 하였는데, Vennemann(1974:346), Hooper(1976:18~20) 등은 이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¹⁾ 이들 논의의 요점은 적격한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해 규칙의 적용 순서를 조정하는 외재적 규칙순(Extrinsic Ordering)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허용하는 규칙이란 그 구조기술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무순조건(No-Ordering Condition)이다. 문제는 국어자료를 검토해 볼 때, 규칙의 구조기술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내재적 규칙순(Intrinsic Ordering)과 외재적 규칙순(Extrinsic Ordering)에 대한 검토는 여러 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바, 외재적 규칙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외재적 규칙순에 의한 도출 과정을 여러 논저에서 그리 어렵게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 충북대학교 강사

1) 이 외에도 70년대에 규칙순이 정립되었다는 것은 Kiparsky(1973:94)에서의 여타 조건(Elsewhere Condition), Anderson(1974:147~165)에서의 국부적 규칙순(Local Ordering)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사실 여타조건은 Kiparsky(1973) 이전에도 언급된 바 있다.

외재적 규칙순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는 Durand(1990:148)의 지적처럼, 외재적 규칙순을 맹목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활용형에서의 음운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원자론적 입장²⁾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활용형 ‘할타’, ‘할른’, ‘할꼬’에 대해 기저형을 ‘할-’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기저어간 ‘할-’과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 각각의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통합형 ‘할+는’에서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통합형 ‘할+고’에서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경음화 과정 이후에 적용한다면 이는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한 인위적 장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원자론적 접근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이다. ‘할-’뿐만 아니라, ‘잃-’, ‘눕-’, ‘놓-’, ‘장:-’³⁾(造) 등에서의 음운과정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고는 규칙순과 관련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규칙 간의 위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 이러한 목적에

2) 원자론적 관점이란 활용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활용형 하나하나에 대해 그 나름대로 규칙순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할+는→할는→할른’에서 표면형 ‘할른’을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즉 자음 ‘ㄷ’의 탈락과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는 이 한 예만을 통해서만 확인하기 어렵다. 보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다른 도출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ㅎ’이 과연 국어에서 음소의 자격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후술하기로 한다.

4) 이러한 논의를 위해 제시되는 자료들은 곡용과 활용에서 나타나는 공시적 음운과정, 특히 자음에 관련된 음운과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표준어와 표준발음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공시적인 규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병근(1981:242), 최명옥(1982:9), 최명옥(1988:64~69), 광충구(1994:15)에서는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과정을 공시적 연구로 한정하였다. 사실 그 밖은 이익섭(1972/1998:289), 이병근(1973/1998:207)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반면 강창석(1989:34)에서는 곡용에서의 음운과정만을 공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송철의(1992:61~64), 송철의(2000:305~307)에서는 파생어와 합성어의 경우 생산성이 인정되는 것을 공시적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신승용(2004:78~85)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공시 규칙이 기능함을 원순모음화를 통해서 제시하려 하였다. 요즈음 일부 형태론자들도 합성어에서의 공시적 생산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공시적 규칙, 통시적 규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기에 보다 일반적인 견해인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과정

부합하는 논의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⁵⁾ 이런 점에서 첨가 규칙, 축약 규칙, 탈락 규칙, 동화 규칙 중⁶⁾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인지 그 위계를 일반화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⁷⁾ 규칙의 위계를 정해 두고 모든 활용형을 그 위계에 따라 차례로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규칙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II. 선결과제

1. 논의 대상의 구분

규칙 간의 위계를 고찰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여러 논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활용과 공용에서의 음운 과정을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 (2)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어미초자음을 경음화시키는 자음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자.

- (1) 활+고→활꼬(舐)
 (2) 가. 업:ㅍ+고→업:꼬(無)
 나. 녀ㅍ+도→녀토포(魂)

을 공시적인 연구 대상으로 이해한다.

- 5) 최적성 이론을 수용한 연구 중에서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읽’, ‘읽:’ 등의 자음군단순화 방식이 방언에 따라 다름을 제약 위계로 설명하는 논의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설명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오정란(1997:16장), 정명숙(1998), 조성문(2000) 등을 참조해 볼 수 있다.
- 6) 우리는 흔히 공시적 음운과정을 ‘대치/교체’, ‘첨가’, ‘탈락’, ‘축약’ 네 가지로 분류한다. ‘대치/교체’는 변동 전후, 음소의 수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다른 세 부류는 음소의 수에 변함이 있는 것이다. 사실 ‘대치/교체’에 속하는 규칙들은 기제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점만을 고려하더라도 ‘대치/교체’는 다른 세 부류와 달리 동화 규칙, 평폐쇄음화 규칙, 경음화 규칙 등 여러 규칙으로 나누어서 고찰해야 할 듯하다.
- 7) 필자 나름대로는 이러한 작업이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기법과 음운규칙을 관련시켜 ‘낮익-()-()→난익’과 같은 문제 유형을 필자는 접한 바 있다. 본고의 작업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에서의 최종도출형 ‘할꼬’에서의 경음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부터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간말 자음 ‘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평폐쇄음화된 ‘ㄷ’이 그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2)에 제시된 예와 같이 폐쇄음으로 시작하는 자음군인 경우에는 어간말의 두 자음 중 어느 자음이 경음화를 유발한 것인가. 먼저 (2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2가)에 제시된 표면형 ‘업:꼬’를 도출하는 방법은 (3)에서와 같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3) 가. 업:ㅍ+고→업:ㄷ고→업:ㄷ꼬→업:꼬⁸⁾
 나. 업:ㅍ+고→업:고→업:꼬

(3가)와 (3나)의 도출과정을 통해 볼 때, 최종도출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초자음을 경음화시키는 자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가)처럼 평폐쇄음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느냐 아니면 (3나)처럼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음화를 유발하는 자음은 달라진다. (3가)는 자음군 중 두 번째 자음이 경음화를 유발한 것이고 (3나)는 자음군 중 앞 자음이 경음화를 유발한 것이다.

(3나)의 도출과정이 간결성 측면에서는 (3가)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표면형의 도출을 위해 (1)의 ‘할+고’에서는 평폐쇄음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2가)의 ‘업:ㅍ+고’에서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이는 원자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또한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한 인위적 장치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의 ‘할+고’, (2가)의 ‘업:ㅍ+고’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때라야 비로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나)와 같은 도출 방식이라면 (1)에 제시된 표면형을 도출할 방법이 없다.

(4) 할+고→*할고

8) 이진호(2002)의 2장에서는 자연성, 일반성, 일관성, 경제성 등의 조건을 토대로 여러 표면형의 도출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음운규칙 간의 위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논문은 개별 활용형에 대한 원자론적 접근을 탈피했다는 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4)에서와 같이 잘못된 표면형 *'할고'를 도출하게 되므로 그것은 우리의 언어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3나)와 같은 방식보다는 (3가)와 같은 도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와 같은 도출 방식을 좇아 어간말 자음군 중 두 번째 자음이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으로 변동시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 곧 평폐쇄음화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하는 것이 과연 곡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나)에 제시된 경음화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자.

- (5) 가. 녀ㅅ+도→녀ㄷ도→녀또
나. 녀ㅅ+도→녀도→녀또

(5)에서의 두 도출과정을 비교해 볼 때, 최종도출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초자음을 경음화시키는 자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3)에 제시된 '업:ㅅ+고'에서의 설명방식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곧 (5가)에서는 평폐쇄음화된 'ㄷ'이, (5나)에서는 'ㄱ'이 경음화를 유발한 것이다.

그런데 (6)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볼 때, (5)에 제시된 어간의 기저형을 과연 '녀ㅅ'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6) 가. 녀ㅅ+하고→녀카고
나. 여덥+하고→*여덜과고
cf. 밭+하고→바과고
- (7) 가. 녀ㅅ+하고→녀ㄷ하고→*녀타고
나. 녀ㅅ+하고→녀하고→녀카고

(6가)에 제시된 표면형 '녀카고'를 도출하기 위해, (7가)에서와 같이 중간과정으로 평폐쇄음화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7나)처럼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만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활용에서는 (3나)에서와 같이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평폐쇄음화 규칙 이후에 적용하고, 곡용에서는 (5나), (7나)에서와 같이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평폐쇄음

화 규칙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6나)의 비적격형 *여덟과고'를 통해 볼 때, 곡용어간은 단독형이 그대로 기저형이 될 수도 있다. (8)에 제시된 예 또한 기저형이 무엇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 (8) 가. 여덟+보다→*여덟보다 cf. 여덟#해→*여덟해
나. 여덟#개→여덟개, 여덟#병→여덟병

(8가)에서와 같이 폐쇄음 'ㅂ' 뒤에서도 어미의 평음이 경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저형을 '여덟'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아울러 (5)에서의 기저형 '넉'도 잘못일 수 있다. 그런데 (8나)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8나)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저형을 '여덟'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그것은 '열개(十個)', '열병(十瓶)'에서도 경음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8나)에서의 경음화는 'ㅂ'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⁹⁾ 곡용어간의 기저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우리는 이상에서 경음화, 유기음화 과정을 통해 곡용에서의 음운과정과 활용에서의 음운과정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Ⅲ장과 IV장에서는 곡용에서의 규칙 간 위계와 활용에서의 규칙 간 위계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9) 명사와 고유어 계열의 수관형사의 결합에서는 후행하는 명사가 한자어이든 고유어이든, 후행하는 명사의 음절초 평음의 경음화는 수관형사의 말자음이 'ㄹ'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임석규 1999:41, 김세환 2005). 이것은 열피, 열싸람, 열짜루, 열끄루, 열뿐 / 열뚱급, 열쌍점, 열쭈기, 열깨, 열빼 / *한피, *한싸람, *한짜루, *한끄루, *한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자어에서 'ㄹ' 뒤의 경음화는 '일쭈기(日週期), 일세기(一世紀), 일뚱급(一等級)'에서와 같이 후행요소의 어미초 자음이 [+coronal] 자질을 가질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뺍(一泊), *일꼭(一局)'에서와 같이 후행요소가 [-coronal] 자질을 가진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 기저음소 ‘ㅎ’

기저음소 ‘ㅎ’의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많은 듯하다.¹⁰⁾ ‘ㅎ’을 기저음소로 설정하게 되면 추상음소를 설정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음에 제시된 ‘載’의 의미를 지닌 자료를 통해서 무엇이 더 간결한 기술인가를 검토해 보자. 필자가 여기에서 기저음소 ‘ㅎ’의 설정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ㅎ’ 말음 어간에 대해 논의하는 IV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9) 가. 살:코, 살:치, 시르니, 시러
나. 살:꼬, 살:찌, 시르니, 시러

(9가)에 제시된 활용형을 통해서 대부분의 논자는 기저형을 ‘싫:-’로 설정한다.¹¹⁾ 문제는 (9나)에서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ㅎ’을 음소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9나)도 (9가)와 마찬가지로 단일기저형 ‘살:ㅎ-’을 설정한다. 그런데 ‘ㅎ’의 추상성을 비판하는 논자들의 체계에서는 기저형을 두 가지로 설정하게 된다. 그들의 체계에 따르면 그것은 ‘싫:-’과 ‘시르-’이다. 문제는 ‘싫:-’이라는 기저형에서 ‘ㄷ’ 자음군이 국어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싫:-’ 대신 ‘싫:-’ 또는 ‘싫:-’이 기저형일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10) 이익섭(1972/1998:285~286)에서 제기된 ‘ㅎ’의 설정 문제에 대해, ‘ㅎ’의 설정을 꺼리는 최근 논의로는 엄태수(1999:124~129), 김혜영(2004:26~31)가 있다. 송철의(2000:304)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기저형으로 ‘산:ㅎ-’, ‘싫:ㅎ-’을 설정하면 후음 계열에서도 마찰음과 폐쇄음이 있어 자음체계에 균형이 잡힌다는 이점, 또한 비음운론적 제약(이병근 1975: 39) 없이도 기술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고 있으나, 기저형에 어간말 세 자음을 인정하는 것, 추상음소라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고 있다. 유희재(2001: 174)에서는 ‘산:ㅎ-’, ‘담:ㅎ-’ 등에서와 같이 어간말에 ‘ㅎ’을 기저형으로 인정하게 되면 국어의 활용어간은 비음으로 끝나는 것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규(1988:39~40)에서는 ‘ㅎ’을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 어려움에 봉착함을 지적하였다.

11) 김성규(1988:35)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음화 과정은 자동적 교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고의 논의와 직접 관계되지 않기에 논외로 한다.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쨌든 (9나)를 단일기저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추상적이라는 한 가지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복수기저형을 설정하게 되면 두 가지의 비판을 받게 된다. 하나는 ‘ㅈ’ 자음군이 국어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여 어휘부를 왜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다.

한 방언권에도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하기도 한다.

- (10) 가. 씨코, 씨:면, 씨:도(洗)
나. 씨꼬, 씨:면, 씨:도(洗)

각각의 첫 번째 활용형에서, 둘째 음절 첫 음소의 차이로 인해, (10가)에서는 단일기저형 ‘씨-’를 설정하고, (10나)에서는 복수기저형 ‘씨-’과 ‘씨:’를 설정하게 되면, 패러다임 (10나)를 가진 화자는 복수기저형에 대해 수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단일화 과정을 생각지도 않고 아무런 불편 없이 언어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기저형이라면 단일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10)에 제시된 활용형은 단일화 과정을 겪지 않고도 화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다. (9나)를 통해 설정된 복수기저형도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복수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는 용언들은 ‘모르-~몰르->몰르-’로의 단일화처럼 재구조화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복수기저형이 무엇인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가 ‘ㅎ’을 기저음소로 설정해야 하는 적극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ㅎ’의 설정이 음운과정의 기술에 보다 유리해 보인다.

III. 곡용에서의 규칙 간 위계

국어음운론연구에서 이제까지 곡용에서의 규칙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곡용에서의 규칙 간 위계를 확정하는 것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II장에서 곡용과 활용에서의 설명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몇몇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는데 그것은 규칙 간 위계를 확정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II장의 논의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업:ㅈ+고’에서 경음화를 유발하는 자음과 ‘녁:ㅈ+도’에서 경음화를 유발하는 자음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녁:ㅈ+하고’, ‘여덟+부터’의 통합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곡용어간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활용과 곡용에서의 음운과정이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또 곡용어간의 기저형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11)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1) 젓+하고→저타고(乳), *저차고

(11)에서처럼 곡용어간의 말자음이 ‘ㄷ’인 경우일 때가 문제이다. ‘젓+하고→저타고¹²⁾’의 경우는, ‘밥+하고→빠파고’에서처럼 *저차고’로 도출되는 축약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평폐쇄음화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곡용에서의 음운과정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 송철의 (1991:284), 배주채(2001:36)에 제시된, 체언은 어간을 단순화하고 고정화함으로써 어간의 교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견해¹³⁾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¹⁴⁾ 화자들은 ‘ㄷ’을 이미 ‘여덟’로 인식해 가고 있

12) (11)에 제시된 예의 경우, 서남방언에서는 축약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저다고’로 실현되는데, 둘째 음절의 초성 ‘ㄷ’ 또한 후술할 곡용어간의 특이성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평폐쇄음화된 ‘ㄷ’이 어미초자음과 축약되지 않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13) 곡용어간은 그 자립성으로 인해 교체형을 만들지 않으려는 결과, ‘불(火)+은’에서는 ‘으’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바보+이다’에서는 ‘이’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분, *바피).

14) 여기에도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동해안방언에서는 ‘머리+에→머레’와 같이 곡용에서의 활음화가 발견되기도 한다. ‘머리가’와 ‘머레’를 비교해 보면 어간의 이형태가 확인된다. 곡용에서의 활음화는 최명옥(1982:109), 김봉국(2002:123~128), 임석규(2004:77~79)를 참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래서 ‘여더리’라는 곡용형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¹⁵⁾ 이러한 현상이 바로 어간을 단순화하여 교체형을 만들지 않으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용언어간과 달리 곡용어간은 언어생활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¹⁶⁾ 이것이 바로 곡용어간의 특이성이다.

앞서 필자는 ‘녁쓰+도’의 통합에서 ‘녁쓰’이 과연 기저형이나 하는 의문을 던졌다. 그것은 (11)의 경우 ‘절+하고’의 통합이나 ‘젓+하고’의 통합이나 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복수기저형을 체언에서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곧 모음어미와의 통합에서는 기저형이 ‘젓’, 자음어미와의 통합에서는 기저형이 ‘절’이라고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꽤 많은 곡용어간이 복수기저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간결한 기술이 아남에 틀림없다. 기저형은 ‘녁쓰’, ‘젓’, ‘여덟’과 같이 단일하게 설정하고 곡용어간 특이성으로 인해 활용과는 다른 규칙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곡용어간의 특이성으로 인해 자음어미와의 통합에서는 어간말음절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자음만이 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곡용어간 말음절의 음절구조제약이다. 이 때문에 ‘녁쓰+도’에서처럼 자음군어간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와 ‘젓+하고’에서처럼 어간말자음이 평폐쇄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어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곧 어간 ‘녁쓰’과 ‘-도’의 결합은 자음군단순화(탈락)의 과정을 겪게 되고, 어간 ‘젓’과 ‘-도’의 통합은 당연히 어간말 평폐쇄음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간말음절에서의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곡용에서는 규칙순의 문제가 크게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15) 이병근(1975:31-32), 강창석(1985:58-59), 송철의(1991:283) 등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곡용어간과 활용어간이 음운과정에서 차이가 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강창석(1985)의 결론은 ‘음운현상의 비음운론적 제약이라는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제약이 관여하는 것은 이미 형태론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16) 송철의(1991:279)에서는 자립성이라는 것이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무언가 불충분함을 지적하였으나 필자는 기술의 편의상 자립성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2)에서의 ‘ㄴ’ 첨가는 수의적인 활음 첨가를 제외하면 활용과 곡용을 통틀어 유일한 자음 첨가의 환경인데, 일견 규칙 적용이 그다지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 (12) 녀ㅅ+요¹⁷⁾→녀ㅅ뇨→녀뇨→녕뇨(魂)¹⁸⁾
 cf. 물+요→물뇨→물료(水), 귀+요→귀요(耳)

두 번째 도출형 ‘녀뇨’는 (3)의 ‘업:ㅅ+고→업:ㄷ고→업:ㄷ꼬→업:꼬’를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활음의 경우라면 ‘녀ㄷ뇨’와 같이 평폐쇄음화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곡용어간의 특이성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12)에서와 같은 도출과정, 곧 첨가, 자음군단순화(탈락), 동화 규칙이 차례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11)에 제시된 ‘젓+하고→저타고’ 통해서 우리는 곡용어간 말음절의 음절구조제약과 관련된 음운과정(평폐쇄음화, 자음군단순화) 후에 축약 규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곡용에서의 규칙간 위계는 ‘첨가)음절구조제약(평폐쇄음화, 탈락)>축약)동화’와 같이 정해짐을 알 수 있다.¹⁹⁾

- 17) 응답을 하거나 반문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소 ‘-요’를 요즈음 중부방언에서는 주로 ‘-이요’의 형태로 쓰기도 한다. 중부방언에서는 ‘너지요~넉씨요(魂)’, ‘무리요(水)’와 같은 발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병근(1975:33)에서는 ‘-이요’가 아니라 ‘-요’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물+요→물뇨→물료’의 중간과정에서 ‘ㄴ’ 앞에서의 ‘ㄹ’ 탈락이 예상되지만 ‘할#일→할날→할릴’과 같은 단어경계에서의 첨가 규칙과 비교해 볼 때, 첨가된 자음 ‘ㄴ’ 앞에서 유음은 탈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자립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 18) (12)에 제시된 ‘녀ㅅ+요→녀ㅅ뇨→녀뇨→녕뇨’의 과정에서 우리는 첨가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고 하였다. ‘녀ㅅ+요→녀뇨→녀뇨→녕뇨’와 같은 음운과정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요’와 결합되는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첨가 규칙의 적용 여부가 우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발전시키면 형태음소론적 표기와 음운과정을 고려하는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합성어 ‘낮익’의 도출을 첨가 규칙을 먼저 적용하여 ‘낮익→낮닉→난닉→난닉’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 19) 사실 어미 ‘-하고’와 곡용어간이 통합하는 경우를 예외로 처리한다면 곡용에서는 축약 규칙이 발견되지 않게 되어 곡용에서의 위계와 후술할 활용에서의 위계를

IV. 활용에서의 규칙 간 위계

1. 축약)평폐쇄음화, 탈락

VCCCV와 같이 모음 사이에서의 세 자음은 국어에서의 표면음성제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두 자음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다. 모음간 세 자음이 두 자음으로 변동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축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다. (11)에 제시된 예를 통해서 이를 검토해 보자.

- (13) 가. 잃+고→일코
나. 잃+는→일는→일른

(13가)에서 탈락 규칙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일고’와 같은 부적격한 표면형이 도출되며 평폐쇄음화 규칙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일ㄷ고→일ㄷ꼬→일꼬’에서와 같이 부적격한 표면형 ‘*일꼬’가 도출된다. 표면형 ‘일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약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바로 VCCCV라는 음소배열에서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그러면 우리는 규칙 간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축약 규칙은 탈락 규칙 또는 평폐쇄음화 규칙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통합적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 20) 김경란(1994:71~72)에서는 ‘잃+는→안는’과 ‘잃+고→안코’의 과정을 ‘표류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ㅎ’은 음절말, 음절초 어디에도 놓이지 못하는 표류자(stray element)이므로 환경에 따라 탈락이 되든지 축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축약이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구조보존의 원리(structure preservation principle)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탈락 이전에 축약이 일어난다는 본고의 논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잃+고’, ‘잃+는’과 같은 예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잃+는’, ‘잃+는’에서의 ‘ㅎ’은 바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평폐쇄음화 과정을 거친 후에 탈락된다.

축약 규칙이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 자음이 연속될 경우는 자음군단순화가 이루어지는데 자음군단순화란 탈락의 과정이 아니라 국어의 표면음성제약에 맞게 음소배열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음소배열의 조정 방법으로는 세 자음이 결국 두 자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축약과 탈락이 있다. 해당 언어에서 특정한 두 음소의 결합이 한 다른 음소로 변동될 수 있다면 그것은 탈락되지 않고도 간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짧+나→짧나→짧라’에서처럼 ‘ㄹ-ㅂ-ㄴ’의 연쇄는 축약의 환경이 될 수 없으므로 탈락이 되어야 하고, (13나)에 제시된 ‘ㄹ-ㅎ-ㄴ’의 연쇄 역시 축약의 환경이 될 수 없으므로 탈락이 되어야 한다. 다만 ‘ㄹ-ㅎ-ㄱ’ 등의 연쇄는 그 단순화의 방향이 축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ㅎ’과 평음 ‘ㄱ, ㄷ, ㅂ, ㅅ’이 축약되어 유기음 ‘ㅋ, ㅌ, ㅍ, ㅊ’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어에 ‘ㄱ, ㄷ, ㅂ, ㅅ’에 해당하는 유기음이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면 축약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계사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축약 규칙이 탈락 규칙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4) 가. 녹차+이다→녹차다
 나. 배:추+이지→배:추지
 다. 어금니+이고→어금니고
 라. 사이+이니→사이니

- (15) 가. 녹차+이었다→녹차였다 *녹차였다
 나. 배:추+이어서→배:추여서 *배:추어서
 다. 어금니+이에요→어금니예요 *어금니예요
 라. 사이+이어도→사이여도 *사이어도

(14)의 예는 계사 ‘이’가 탈락된 것이고 (15)의 예는 ‘이’가 탈락되지 않고 후행 음절과 축약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꼭용어간말의 환경이 개음절어간으로 동일한데, 어떻게 음운과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16)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될 수 있다.

(16) 계사와 통합하는 곡용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에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계사의 '이'가 탈락되며, '이'에 후행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이'가 탈락하지 않고 축약된다.²¹⁾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도 음운과정에 대한 일반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그것은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 음운과정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 (17)에 제시된 설명은 어떠한가 검토해 보자.

(17) (14)에 제시된 예와 같이 CVVC의 경우에는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모음 하나가 탈락하고, (15)에 제시된 예와 같이 CVVVC의 경우에는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둘째 모음이 활음으로 변동한다.

(17)과 같은 해석이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음충돌 회피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치오이다', '기어이'와 같이 세 개의 모음이 연쇄된 경우에도 활음이 반드시 첨가될 필요는 없다.²²⁾ 그러므로 (17)과 같은 설명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탈락 규칙과 축약 규칙 중에서 축약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일반화하고자 한다. (15가)에 제시된 '눅차+이+엇+다'의 경우, 계사의 '이'를 탈락시키면 우리는 잘못된 표현형 *'눅차어따'를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15다)에 제시된 '어금니+이+에요'의 경우, '이' 모음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탈락 규칙의 적용은 봉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락 규칙의 적용 전에 축약 규칙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축약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탈락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것을 대등한 위계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항상 탈락 규칙의 적용에 앞서 축약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1) 사실은 'y' 활음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음절의 관점이라면 축약으로 볼 수 있다. 배주채(2001:36)에 이러한 언급이 있다.

22) 송철의(1991:292)에서는 '비웃'과 같은 예를 통해 모음연쇄가 가능함을 밝히면서 활음화는 표면음성제약에 의한 음운과정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2. 평폐쇄음화>탈락

II장에서 우리는 탈락 규칙과 평폐쇄음화 규칙 중 평폐쇄음화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면서 좀더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활용형 ‘할타’, ‘할꼬’를 통해 우리는 기저형을 ‘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활용형 ‘할타’의 경우는 기저어간 ‘할-’과 부사형어미 ‘-아’가 통합할 때의 연음화 과정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활용형 ‘할꼬’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18)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18) 가. 할+고→할고→할꼬→할꼬

나. 할+고→할꼬

(18가)의 경우는 평폐쇄음화를 겪은 ‘ㄷ’이 후행하는 어미의 초성을 경음화시킨 후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³⁾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올바른 표면형 ‘할꼬’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적격한 표면형인 *‘할고’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자음군단순화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적절한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으로는 (18나)에서와 같이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 세 자음 중 ‘ㄷ’이 탈락한 후 그 보상적인 결과로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두 음운과정의 차이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경음화 규칙보다 먼저 적용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간결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18나)와 같은 도출이 우위에 있지만 (18나)에서와 같이 탈락한 자음이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음군단순화 규칙에 의해 탈락한 자음이 어떻게 후행 분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또 국어에

23) 자세한 것은 II장 (1)-(4)에서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II장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서 탈락에 의한 보상적 경음화, 탈락에 의한 보상적 장음화 등이 가능하지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²⁴⁾

(18)에 제시된 표면형 ‘할꼬’를 도출하는 또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어간 ‘할-’과 어미 ‘-고’의 통합에서 표면형 ‘할꼬’를 도출하기 위해 임석규(1999:38~39)에서처럼 비음운론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

(19) 가. 신:+고→신:꼬, 담:+고→담:꼬
나. 넓+고→넙꼬

(20) 가+고→가고, 불:+고→불고

우리는 활용어간이 ‘ㄴ’, ‘ㄹ’으로 끝나는 경우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19가)와 같은 예를 잘 알고 있다. (19가)에 제시된 활용어간의 기저형을 ‘신:ㅎ’로 설정하여 경음화 규칙을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배주채(1989:57)에서 언급한 대로 ‘삼:꼬, 살마’, ‘곰:꼬, 골마’의 기저형을 각각 ‘삼:ㅎ’, ‘곰:ㅎ’과 같이 어간말 3자음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우리는 (19)와 (20)에 제시된 예들의 음운론적 환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9)의 경우는 어간말음이 [-vocalic]인 경우이며 (20)의 경우는 어간말음이 [+vocalic]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21)과 같은 기술을 할 수 있게 된다.

(21) [-vocalic]을 말음으로 하는 활용어간의 경우는 어미초자음이 경음으로 변동한다.

이렇게 본다면 ‘넙+고’의 경우 ‘넙꼬’로의 경음화는 음운론적 과정 이전에 이미 비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넙꼬’와 같은 형태가 중간과정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어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고’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되면 ‘놓+세’의 경우도 마찰음화를 설정하

24) ‘쌍+으니→싸으니→싸:니’에서와 같이 이병근(1978:50), 정인호(1995:60), 김경아(2000:117) 등에서는 후음 탈락과 ‘으’ 탈락에 의한 장모음화를 인정한다. 반면, 한영균(1988:8)에서는 후음 탈락이 장모음화의 동기는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으’ 탈락에 의한 장모음화만 인정하고 있다. 탈락에 의한 장모음화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로 파악한다.

지 않고 ‘농췌’와 같은 중간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21)과 같은 방식은 탈락이 먼저냐 경음화 규칙이 먼저냐 하는 규칙순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간결한 방식인 듯하다. 그럼에도 비음운론적 제약을 둔다는 것이 음운론자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하다. 이 견해가 지닌 문제점은 경남의 일부 방언의 기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남의 여러 지역어에서 (19가)에 제시된 ‘신:+고’에서는 경음화되지 않고 (19나)에 제시된 ‘넓+고’에서만 경음화된다. 여러 방언이 모여 국어음운론의 본모습을 규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21)과 같은 설명 방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8가)와 같은 도출 방식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평폐쇄음화 규칙은 탈락 규칙에 선행하는 것으로 규칙 위계를 정하고자 한다. 경음화 규칙과 탈락 규칙의 위계도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다. 평폐쇄음화가 유발한 경음화는 자동적 교체이므로²⁵⁾ 탈락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됨이 당연하다. ‘삼:+고→삼:꼬’에서의 경음화 규칙 또한 탈락 규칙에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저형을 ‘삼:ㅁ’으로 설정하여 축약에 의한 경음화로 기술하든, 활용어간이라는 비음운론적 제약을 두어 경음화를 기술하든, 어떤 경우에서나 경음화 규칙은 탈락 규칙에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축약 규칙은 탈락 규칙과 평폐쇄음화 규칙에 우선되며 평폐쇄음화 규칙(에 의한 경음화)은 탈락 규칙에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3. 탈락>동화

여기에서는 탈락 규칙과 동화 규칙의 위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8가)에서 제시한 규칙순, 즉 자음군단순화를 평폐쇄음화 규칙, 경음화 규칙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넓+나’의 도출과정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넓+나’의 도출과정은 (22)에서와 같이 두 가지

25) 물론 동남방언의 하위방언권에서는 이러한 표면음성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22) 가. 넓+나→넙나→넙라
 나. 넓+나→넙나→넙라→넙라

그런데 (18가)에서의 도출과정 ‘활+고→왔고→왔꼬→활꼬’와 (22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18가)에서는 평폐쇄음화 규칙과 경음화 규칙 이후에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적용하고 (22가)에서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표면형을 도출하였다. (18가)에서와 같이 ‘넓+나’에서도 자음군단순화 규칙을 나중에 적용하게 되면 (21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21나)에서의 ‘넙나→넙나’와 같은 중간과정은 국어의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무시한 것이다. ‘삼:는’의 통합에서는 ‘ㄹ’이 탈락되어 ‘삼:는’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21나)에서의 과정은 수정되어 ‘넙+나→넙나→넙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출형 ‘*넙나²⁶⁾’가 적절한 표면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명백히 ‘넙+나’에서의 통합은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 즉 비음화 규칙에 앞서 자음군단순화(탈락)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야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미초자음 ‘ㄴ’으로 인해 평폐쇄음화에 유발된 경음화 규칙이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은 과정은 탈락의 과정뿐이다.

이상에서 동화 규칙과 탈락 규칙 간의 위계는 탈락 규칙이 우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는→부:는’에서의 유음화 규칙이 봉쇄되고 탈락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활용에서의 규칙 간 위계는 ‘축약)평폐쇄음화(에 의한 경음화))탈락)동화²⁷⁾’와 같이 정해지게 된다.

26) 일부 중부방언 화자들이 발화하는 ‘넙나’, ‘짬나’ 등은 표준발음이 아니다.

27) 이러한 위계가 곡용에서는 ‘첨가)음절구조제약(평폐쇄음화, 탈락))축약)동화’와 같이 정해진 바 있다. 이렇듯 곡용에서의 활용에서의 규칙 간 위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곡용어간의 자립성 때문이다. II, III장을 참고할 수 있다.

4. 논의의 적용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규칙 간 위계가 합당한 것인지 몇몇 자료를 통해 적용해 보기로 한다.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ㅎ-말음 어간의 음운과정을 검토해 보자.

- (23) 가. 놓+고→노코, 놓+지→노치
나. 놓+세, 잃+세→일세

(23가)는 ‘ㅎ-ㄱ’ 또는 ‘ㅎ-ㄷ’의 연쇄이며, (23나)는 ‘(ㄹ)ㅎ-ㅅ’의 연쇄이다. (23가)의 예를 통해 볼 때 평폐쇄음화 규칙보다는 축약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올바른 표면형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만약 평폐쇄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면 (23가)의 경우는 *‘놀꼬’, *‘놀찌’와 같은 잘못된 표면형이 도출된다. 그런데 (23나)의 자음 연쇄는 축약의 환경이 되지 못한다. 올바른 표면형의 도출을 위해서는 경음화 규칙이 필요하다. ‘잃+세’의 경우 ‘ㄹ-ㅎ-ㅅ’의 3자음 연쇄에서 후음을 탈락시키면 부적절한 표면형 *‘일세’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음군단순화 규칙에 앞서 다른 규칙을 적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24)에서와 같이 평폐쇄음화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4) 잃+세→일ㄷ세→일ㄷ췌→일세

평폐쇄음화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경음화의 과정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ㅎ’의 평폐쇄음이 ‘ㄷ’이라고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II장에서 ‘ㅎ’에 대한 설정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필자는 성문마찰음 ‘ㅎ’의 평폐쇄음인 ‘ㅎ²⁸⁾’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28) ‘ㅎ’이 평음이라는 견해에 대해 이견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훈민정음체계에서의 전청 계열 자음인 ‘ㅎ’을 현대국어에서도 평폐쇄음이라 파악한다. ‘ㅎ’을 현대국어에서 경음으로 파악하게 되면 중세국어에서의 평음이 현대국어에서 경음으로 변화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필자의 현재 역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한다. 그리하여 어미초자음이 ‘ㄱ, ㄷ, ㅂ, ㅈ’이 아닌 경우, 어간말 ‘ㅎ’은 성문폐쇄음 ‘ㅎ’로 변동한다는 평폐쇄음화 규칙을 설정하고자 한다.²⁹⁾ 사실 이러한 언급은 역사적 관점에서 배주채(1992:192)에 언급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ㅎ’이 불과화를 겪을 때 바로 ‘ㄷ’으로 변했다기보다는 ‘ㅎ’과 같은 음을 거쳐 ‘ㄷ’에 이른 것인데 지금은 그 중간과정이 남아 있지 않다(telescoping)는 것이다. ‘ㅎ’이 ‘ㅎ’로 평폐쇄음화된다면 ‘농+세’에서의 음운과정은 상당히 명쾌해질 수 있다. ‘ㅎ’이 폐쇄음으로 바뀌어 음절말에 ‘ㅎ’이 놓이게 된다. 이어서 후행하는 자음 ‘ㅅ’과 축약이 되어 경음 ‘ㅆ’으로 변동하게 된다.³⁰⁾ 또한 ‘ㅎ’을 ‘ㅎ’의 평폐쇄음이라고 하면, 송철의(2000:30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폐쇄음화는 자음체계 내에서 해당 조음위치의 평폐쇄음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평폐쇄음화 규칙과 축약 규칙의 선후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23가)를 통해서도 축약 규칙이 평폐쇄음화 규칙에 앞서게 됨을 알 수 있고 (23나)를 통해서도 축약 규칙보다 평폐쇄음화 규칙이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축약 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것이 축약의 환경이 아니라면 평폐쇄음화 규칙을 적용한다. 그 이후의 중간과정도 또한 ‘축약’평폐쇄음화 규칙의 순서가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 평폐쇄음화 규칙을 적용한 후 다시 축약의 환경이 되면 축약 규칙은 다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의 음운과

29) 이와 같은 방식은 김차균(1991:34)에도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ㅎ→ㄷ’로의 변동을 강화작용으로 설명한다. 비음 앞에서의 ‘ㅎ’이 ‘ㅎ’로 변동한다는 것은 정인호(1995:46)에도 제시된 바 있다.

30) 이렇게 되면 마찰음화를 설정하지 않고 표면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 표면형 ‘노세’를 도출하기 위해 ‘농+세→논세→넛세→노세’와 같이 평폐쇄음화 규칙과 마찰음화 규칙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고, ‘농+세→논세→논세→노세’와 같이 평폐쇄음화 규칙, 경음화 규칙, ‘ㄷ’ 탈락 규칙을 상정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허웅(1985:228), Kim-Renaud(1975:237~240), 최명옥(1982:147~148) 등의 견해이며 후자의 입장은 배주채(1992:187~191)의 견해이다. 배주채(1992:191)에서는 ‘논소→노소’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어에서의 ‘ㄷ-ㅆ’의 연쇄는 불가능하므로 ‘ㄷ’ 탈락 규칙을 설정하였다. 본고의 ‘ㅎ’로의 평폐쇄음화를 상정하지 않고 ‘ㄷ’으로의 평폐쇄음화를 견지하더라도 필자가 정한 규칙 간의 위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에서 항상 우선되는 것은 축약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읽+고’의 경우는 축약의 환경이 되므로 축약 규칙을 적용하고 ‘읽+세’의 경우는 축약 규칙의 환경이 될 수 없으므로 평폐쇄음화 규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읽^ㅎ세’라는 중간과정을 얻게 되고 이는 다시 축약의 환경이 되었으므로 축약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ㅎ’로의 평폐쇄음화를 가정하게 되면 또다른 이점도 생기게 된다. 활용형 ‘진:는(作), 자:꼬, 지어~자:’에서의 어간의 기저형을 ‘장:’으로 파악하는 경우, ‘장:+는’의 음운과정이나 ‘놓:+는’의 음운과정을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다.

- (25) 가. 자:ㅎ+는→ 잘:는 →잔:는
나. 놓:+는→노^ㅎ는→놓^는는→논^는는

(25)에서와 같이 ‘ㅎ→ㄷ’의 변동 과정 하나만을 기술함으로써 ‘ㅎ→ㄷ’과 ‘ㅎ→ㄷ’ 양자를 설명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³¹⁾

아래에서는 규칙 간 위계에 대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자.

- (26) 활:+는→활^는는→활^는는→활^른는

(26)에서의 ‘활:+는’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평폐쇄음화 규칙, 자음군단 순화 규칙(탈락)이 차례로 적용된 것이 바로 ‘활^는는’이다. 다음으로 유음화 규

31)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ㅎ→ㄷ’의 변동이다. 여기서 ‘ㅎ→ㄷ’ 변동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내세운 이진호(2003:185)의 주장을 참고해 보자. 이 논의를 간단하게 밝히면 어간말자음 ‘ㅎ’은 음절말에서 실현될 수 없는 ‘ㅎ’의 자질값 즉 [지속성]과 [유기성]이 제거되면서 후행자음의 조음위치자질값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놓:+는→놓^는는’, ‘놓+세→놓^는세→놓^는세→노^는세’와 같은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ㅎ’이 어미 ‘-는’에서의 초성 ‘ㄷ’의 조음위치자질값을 이어받으면 ‘ㄷ’으로 변동되고, 어미 초성 ‘ㅅ’의 조음위치자질값을 이어받으면 ‘ㄷ’으로 변동된다는 것이다. ‘ㅎ→ㄷ’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ㅎ→ㄷ’의 설명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ㅎ→ㄷ’은 조음위치자질을 이어받는 것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칙의 환경을 만족하므로 동화로서의 유음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26)을 통해 한 가지 의문을 지닐 수 있다. (24)에 제시된 ‘잃+세’의 도출을 통해 환경만 되면 축약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26)에서의 마지막 음운과정에서는 유음 탈락의 환경이 되었는데도 유음이 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특정 규칙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히는’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³²⁾ 이런 점에 근거하여 임석규(2002:129)에서는 ‘탈락제약’을 설정한 바 있다. 탈락제약이란 음운의 탈락은 일련의 음운과정에서 연속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³³⁾ 사실 중간과정 ‘할는’은 이미 탈락(자음군단순화) 규칙이 한 번 적용된 것이므로 또다른 탈락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잘못된 도출형 ‘*히는’이 봉쇄되고 올바른 표면형 ‘할른’이 도출될 수 있다.³⁴⁾

이상에서 꽤 길게 진행된 본고의 논의를 (27)에 간단히 정리해 보자.

(27) 활용에서의 규칙간의 위계 : 축약) 평폐쇄음화(에 의한 경음화) > 탈락) 동화 (특정 규칙이 적용된 후에 적용될 규칙 또한 위와 같은 위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 음운의 탈락은 일련의 음운과정에서 연이어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위계는 폐음절어간과 어미가 통합한 모든 활용형에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축약의 과정을 고려하고, 축약의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위계인 평폐쇄음화의 과정을 고려하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폐

32)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무순조건(No-Ordering Condition)이 국어에 적용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33) ‘쌓+아도→싸+아도→싸:도’의 과정에서도 ‘ㅎ’ 탈락 후 동음 탈락이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면 표면형은 ‘싸:도’가 아닌 ‘싸도’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임석규(2002:132~136)에서는 탈락제약과 관련하여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오X’와 ‘X’로 구분하였다. 매개모음어미의 기저형을 단일하게 ‘오X’로 설정하게 되면 ‘불:니→부:니’에서와 같이 탈락 규칙을 연속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34) 최명옥(2004)에서도 탈락제약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어간의 의미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히는’의 도출이 봉쇄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와(가져와)’, ‘든놓-(들여놓-)’ 등처럼 앞 요소의 원래 의미를 파악 못할 정도로 형태가 심하게 바뀐 어형들도 접할 수 있다. 의미파괴와 음운과정 간의 정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듯하다.

쇄음화의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탈락의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또 탈락의 과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위계인 동화의 과정을 통해 도출하지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폐음절어간과 어미가 통합한 여러 음운과정을 검토하면서 음운규칙 간의 위계를 확정해 보았다. 이로써 외재적 규칙순으로 인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해 오던 일부 도출과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국어의 음운과정의 기술에서 가급적 외재적 규칙순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내재적 규칙순만으로 모든 음운과정을 기술하기는 어렵다. 많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규칙 간의 위계를 확정하여 모든 자료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길게 진행된 논의를 아래에 요약해 보기로 한다. 곡용에서의와 활용에서의 위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어간의 자립성 유무와 관계 있다.

곡용의 경우

- ① 곡용어간은 활용어간과 달리 자립형식이라는 특이성에 근거하여 곡용어간의 음절말에 한 자음만을 허용하는 음절구조제약이 먼저 작용하게 되어 자음군어간이든 자음군어간이 아닌든 음절말에는 7자음만이 놓이게 된다. 축약 규칙에 선행하는 것이 바로 이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한 평폐쇄음화 규칙 또는 자음군단순화(탈락) 규칙이다.
- ② 첨가 규칙은 그 어떤 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동화 규칙은 활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위계가 가장 낮다. 이에 곡용에서는 '첨가>음절구조제약(평폐쇄음화, 탈락)>축약>동화'와 같이 그 위계를 정할 수 있다.

활용의 경우

- ① 자음군단순화는 축약의 과정과 탈락의 과정으로 나뉘며 이 때, 축약의 과정이 탈락의 과정에 우선한다.
- ② 음운규칙은 '축약>평폐쇄음화(에 의한 경음화)>탈락>동화'와 같이 그 위계를 정할 수 있다.

활용에서는 첨가 규칙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첨가 규칙과 축약 규칙 간의 위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ㄷ+요→ㄷ+뇨→ㄷ뇨→녕뇨’에서의 ‘ㄷ’ 첨가, ‘할#일→할닐→할릴’에서의 ‘ㄷ’ 첨가와 ‘젓+하고→절하고→저타고’에서의 축약 규칙을 고려해 볼 때, 첨가 규칙이 국어의 음운규칙 중 가장 상위의 위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중등교육과정에서처럼 표기와 음운과정을 연관시킨다면, 합성어 ‘낮익’, ‘풀잎’은 각각 첨가 규칙을 가장 먼저 적용하여 ‘낮익→낫닉→난닉→난닉’, ‘풀잎→풀뇨→풀닙→풀립’처럼 도출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창석(1985), 「활용과 곡용에서의 형태론과 음운론」, 『울산어문논집』 2, 47~67.
- 강창석(1989), 「현대국어 음운론의 허와 실」, 『국어학』 19, 3~40.
-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 김경란(1994), 「음운규칙의 위에서 아래로의 분석」, 『언어』 19-1, 69~86.
-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 김봉국(2002), 「강원도 남부지역방언의 음운론」, 서울대대학원(박사).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25~44.
- 김세환(2005), 「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대학원(석사), 미간.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271~299.
- 김차균(1991), 「국어 음운 현상의 새로운 해석과 정리」, 『논문집』 18(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5~61.
- 김혜영(2004), 「통영 방언의 불규칙 활용 연구」, 『형태론』 6-1, 25~42.
-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 배주채(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181~204.
- 배주채(2001), 「지정사 활용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7, 33~59.
- 송철의(1990), 「자음동화」, 『국어연구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송철의(1991), 「국어 음운론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278~296.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송철의(2000), 「형태론과 음운론」, 『국어학』 35, 287~311.
- 신승용(2004), 「『구』 『단』 원순모음화 현상 연구-경북방언을 대상으로」, 『국어학』 44, 63~88.
- 신승원(2000),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홍익출판사.
- 오정란(1997), 『개정판 현대 국어음운론』, 형설출판사.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 엄태수(1999), 『한국어의 음운규칙 연구』, 국학자료원.
- 이병근(1973/1998),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이병근·곽충구 편 (1998), 205~225.

- 이병근(1975),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17~44.
-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1~28.
- 이병근(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223~246.
- 이병근·곽충구 편(1998), 『방언』, 태학사.
- 이병근·최명옥(1997), 『국어음운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이익섭(1972/1998),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이병근·곽충구 편 (1998), 281~312.
- 이진호(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학교원(박사).
- 이진호(2003), 「국어 ㅎ-말음 어간의 음운론」, 『국어국문학』 133, 167~195.
- 임석규(1999), 「영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60.
- 임석규(2002), 「음운탈락과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0, 113~138.
- 임석규(2004), 「동남방언 음운론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국어학』 43, 63~95.
- 정명숙(1998), 「국어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대한 상용 이론 설명」, 『한국어학』 7, 283~319.
-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
- 조성문(2000), 「최적성이론에 의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방언 차이 분석」, 『사회언어학』 8~1, 497~523.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 『국어학』 14, 149~188.
- 최명옥(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 65, 63~80.
- 최명옥(2004), 「한국어 음운규칙 적용의 한계와 그 대체 방안」, 제38회 어학연구회 발표요지, 서울대언어교육원.
- 한영균(1988), 「비음절화 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1~26.
-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Anderson, S. R.(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Academic Press.
- Chomsky, N. &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Low.
- Durand, J(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Longman.
- Hooper, J. 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 Kenstowicz, M. & C. Kisseberth(1979),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 Kim-Renaud, Young-Key(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Tower Press.
- Kiparsky, P.(1973), "Elsewhere in phonology", In S. Anderson and P. Kiparsky (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Rinehart and Winston, 93~106.
- Vennemann, T.(1974), "Words and syllables in natural generative grammar", In T. Bruck et al.(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natural phonology*, Chicago Linguistic Society, 346~374.